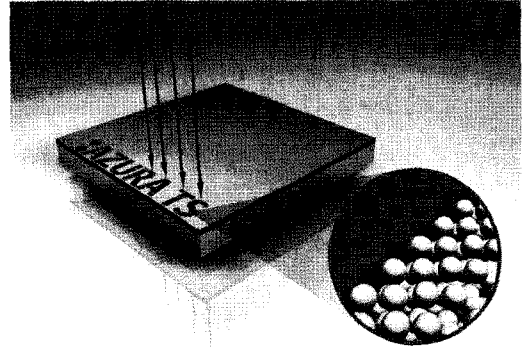


CTP 생산업체별 신제품과 솔루션

인쇄업계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요즘에도 다수의 벤더가 인쇄업체에게 효율성 제고와 인건비 절감, 부가가치 창출을 약속하는 신제품과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2009년에도 각종 CTP 솔루션이 출시되어 인쇄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전망이다.



아그파(Agfa)



아그파가 올해 선보인 신제품과 서비스 중에선 Azura TS 씨벌 CTP판이 단연 돋보인다. 전에 나온,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Azura판의 개량 모델이다. Azura TS는 이전 모델보다 처리량이 50% 더 클 뿐만 아니라 색상 대비가 더욱 뚜렷해 육안 검사하기도 좋다. PIA/GAFT 인터텍 수상작인 Energy Elite 판과 작년 Graph에서 선보인,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씨벌 바이올렛 판, Avalon 플레이트세터 계열의 Avalon N8-50E 플레이트세터도 올해 새롭게 출시되었다.

와이드 포맷의 잉크젯 인쇄에 관심이 있는 업체라면 작년 가을 북미 시장에 출시된 실내외 간판용 Anapurna XLS를 눈 여겨 볼만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량 작업에 맞게 설계된 Anapurna XLS UV 프린터는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우수한 이미지 품질이 장점이다. XLS는 유니버설 프린트 헤드(최대 해상도 1440dpi), 폐쇄형 잉크공급 시스템, 자동 용지(media) 제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한 채 고품질 인쇄를 실현하는 유지보수 시스템 등 아그파가 독자 개발한 기술을 다수 탑재하고 있다. 최대 폭 100인치의 롤 용지로 인쇄하기 때문에 용지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

후지그래픽스(Fuji Graphics)

Javelin 8800E/S/Z/ZX 씨벌 플레이트세터 시리즈는 후지필름의 8업 CTP 장치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2페이지 판부터 8페이지 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판 형태와 형식을 지원한다. Javelin 8800 시리즈는 차세대 GLV(Grating Light Valve) 씨벌 이미징 기술을 채택하여 512 및 1024 채널 노출 헤드들

적용했다. 8800ZX는 고급 이미지 품질과 높은 인쇄 속도를 동시에 원하는 업체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간 당 51판의 속도로 이미지를 인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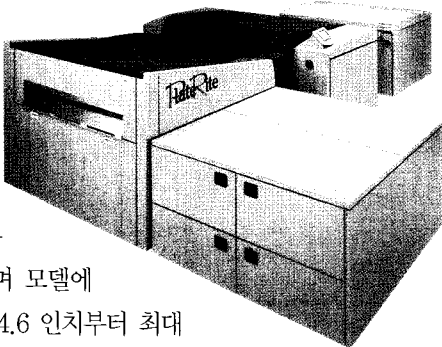
Javelin 8800E는 시간 당 24판, 8800S는 시간 당 32판, 8800Z는 시간 당 42판을 인쇄하므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Javelin 8800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와 S 모델은 현장에서 각각 시간 당 32판과 42판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Javelin 외에 광학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은 GLV도 있다. GLV 모듈은 효율성과 융통성이 좋아 고선명 텔레비전 모니터, 영화용 프로젝터, 상업용 비행 시뮬레이터 디스플레이, CTP 장치용으로 개발되었다. GLV 기술을 디지털 이미징에 적용하면 디지털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쇄판에 직접 전송할 수 있다. GLV 기반의 레이저 다이오드 노출 헤드에는 인쇄판을 폭 넓게 노출시키는 512채널(E, S 또는 Z) 또는 1024 채널(ZX)의 이미징 레이저가 달려 있다. 이 노출 헤드의 이미징 폭 덕분에 플레이트세터가 저속으로 한 번 회전할 때 이미징되는 영역이 넓다.

스크린(Screen)

스크린을 대표하는 8업

CTP 장치는 평균 이상으로 판을 소모하는 업체에 적합하다. PlateRite 8800 시리즈는



네 모델로 나뉘며 모델에 따라 최소 12×14.6 인치부터 최대

45.6×37인치까지 판을 처리한다.

GLV(Grating Light Valve) 기술이 적용된 멀티채널 이미징 헤드가 탁월한 처리량을 약속한다. 이미지 해상도는 1,200, 2,400, 2,438, 2,540dpi가 기본이다. PlateRite 8800E는 40.5×31.4인치 2,400dpi 해상도를 기준으로 시간 당 최대 24판을 처리한다. PlateRite 8800S는 시간 당 32판을 처리한다. PlateRite 8800Z는 해상도를 4,000dpi까지 높일 수 있어 채권, 증권, 입체 제품까지도 인쇄할 수 있다. 속도는 시간 당 42판이다. PlateRite 8800ZX는 4000dpi 해상도에 시간 당 50판이라는 속도를 자랑한다.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하이델베르크의 Saphira Violet Chemfree 판은 다음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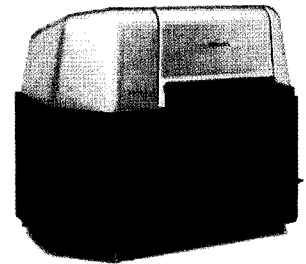
특징을 자랑한다. 30mW 레이저가 장착된 바이올렛 레이저 장치라면 어떤 것에서도 노출이 가능하다. 더 큰 레이저는 필요치 않으며 크다고 처리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쾌속 판 CTP 장치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상도는 200lpi에서 2~98퍼센트이며 최대 240lpi까지 하이브리드 스크리닝을 지원한다. 런 렉스(run length)는 10만 썩 이상이다. 또한 판은 굳히거나(baked) 런 렉스를 늘려 UV 인쇄를 할 수 있고, 색상 대비와 이미지의 가시성이 매우 우수하여 정상적인 판검사와 식별이 용이하다. 늦어도 올 여름까지는 시중에 나올 예정이며, 판 표면은 검(gum)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디벨로퍼나 물은 쓰지 않아도 된다.

프레스텍(Presstek)

프레스텍의 CTP 제품 담당 매니저 스틱 샤프는 “2009년 경기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는 현재 무 화학약품 장치인 Vector FL 52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인쇄업체는 상당한 경쟁우위에 서게 된다고 한다. 스틱 샤프는 “판은 수돗물로 닦아도 된다”면서 “화학약품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정이 간소화되고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Drupa 2008에서 처음 선보인 Vector FL 52는 협소한 공간 문제로 고민하는 업체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스틱 샤프는 “이 제품은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좁은 작업장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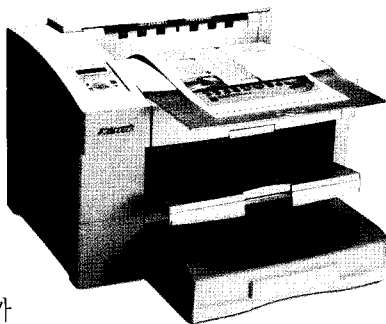
Vector는 우수한 점(dot) 품질과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새 광섬유 레이저 이미징 시스템이 특징이다. 여러 가지 판 크기를 지원하고 프레스텍의 무 화학약품 Pro판으로 이미징을 한다. Pro판은 Vector의 일체형 판 세척기 안에서 자동으로 세척된다. 프레스텍의 그레인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무 화학약품 판은 인쇄 성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롤업과 잉크 및 물 관용도가 우수하며 인쇄가 끝날 때까지 색상이 일관되고 인쇄 중 취급도 쉽다.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Pro판은 이미징 후에도 읽기가 용이해 인쇄기에 장착하기 전에 면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프레스텍 판은 이미징 후에 굳히거나 기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인쇄기에 장착하기 전에 물로 닦기만 하면 충분하다. 또 UV 잉크에 쓰이는 용매에도 저항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UV인쇄와 재래식 인쇄에 다 쓸 수 있어 두 가지 판을 재고로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 Compass 4000시리즈 4업 플레이트세터와 Compass 8000시

리즈 8업 플레이트세터를 주력으로 하는 Compass 시리즈 플레이트세터는 생산 속도가 시간 당 15에서 38판에 이른다. 최대 250lpi(100 l/cm)까지 이미징을 하며 프레스텍의 Aurora Pro 무 화학약품 판과 궁합이 잘 맞는다. 이 밖에 각종 저 에너지 (830nm 레이저) 3자 써멀 판도 이미징을 한다. 스타트 샹포는 “이 제품은 개방형 시스템 판으로서 코닥이나 스크린, 그 밖에 다른 벤더가 만든 써멀 플레이트세터에서도 문제없이 구동 합니다”라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제품”임을 강조했다.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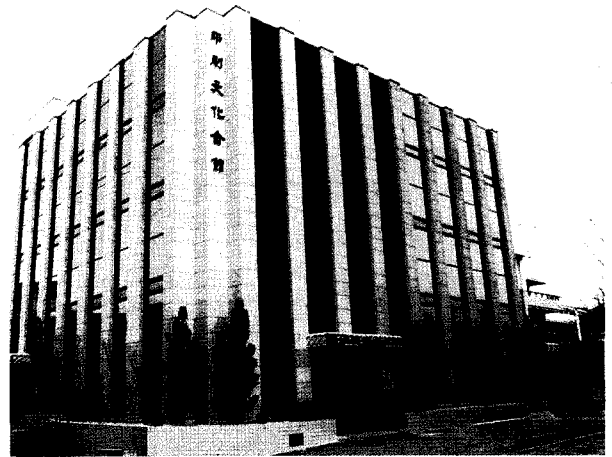
Compass 4015와 4038 플레이트세터는 진정한 4업 드럼 사이즈를 자랑하며 최대 30.0×26.96인치 판을 각각 시간 당 15개와 38개까지 이미징 한다. Compass 8022와 8030은 8페이지 플레이트세터로 최대 45.7×37.4인치 판을 이미징 할 수 있다. Compass 8022와 8030은 풀 사이즈 판을 시간 당 최대 22개 또는 30개까지 이미징 한다.

잔테(Xante)

잔테는 올해 효율성 개선과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CEO 로버트 로스는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까지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올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자신감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공포지수가 높은 편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잔테는 소모품 사업의 비중이 커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16업 폴리에스테르 CTP 장치인 PlateMaker 5XL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0월 Graph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장치는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로버트 로스는 “이 제품은 중저가 시장이 목표입니다. 서적 인쇄, 대량 문서 인쇄, 신문 같은 틈새시장에 아주 적합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화학약품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PlateMaker 5XL은 4색 인쇄가 아니다. 대략용 교과서 인쇄 같은 B/W 애플리케이션이나 별색(spot color) 애플리케이션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출처 www.Printingnews.com (미국)
 번역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대한인쇄문화협회는 1948년 창립된 우리나라 인쇄업계 최초의 공식단체로 인쇄문화의 위상제고와 인쇄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계획 수립
- 법률 보완 및 제도적 지원활동
- 글로벌 홍보(영문 홈페이지, 온라인 프린팅뉴스, 미디어 홍보강화 (직지 및 인쇄문화))
- 인쇄문화진흥재단 및 발전기금 설립 추진 (범업계적인 구성 및 활동강화)
- 세계인쇄문화박물관 설립 추진
- 인쇄브랜드 가치 제고
- 인쇄문화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 블루오션 창출 및 수출진흥
- 민족의 우수성과 한글을 빛낼 국민서체의 개발
- 국제교류 및 발간사업 확대
- 품질인증사업 및 Green Print 인증제도
- 미래 인쇄를 대비하는 전문인력 양성
- 국내외 인쇄기자재전시회 주관 및 참여확대
-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시상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6 인쇄문화회관 4층
 T.02-335-5881 F.02-338-9801
www.print.or.kr / www.printingkorea.or.kr